타격 슬럼프 안현민… 지독한 ‘성장통’

kt 간판 타자서 타율 3위로 추락
장타율 선두도 삼성 디아즈에 내줘
좌투수에 강하던 타율 하락이 원인
8월부터 내리막… 좌완에 홈런 ‘0’
체력 고갈에 부상까지 설상가상

2025 프로야구 최우수선수(MVP) 후보로 거론되던 kt wiz의 차세대 간판 타자 안현민(22·사진)이 고전하고 있다.

지난 달 중순까지 압도적인 성적으로 타격 지표에서 선두를 달리던 안현민은 최근 슬럼프에 빠졌다.

타율은 지난 달 14일 0.351에서 이달 10일 0.330으로 떨어지며 전체 3위로 처졌다.

장타율(0.564)도 삼성 라이온즈 르윈 디아즈에게 1위를 내주고 2위로 내려왔다.

안현민의 최근 기록을 살펴보면 특기할 만한 점이 있다. 바로 좌투수 상대 성적이다.

우타자인 안현민은 7월31일까지 오른손 투수보다 왼손 투수에게 강했다. 우투수에 상대 타율 0.343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고, 좌투수엔 0.419로 더 좋은 기록을 뽑아냈다.

특히 안현민은 이 기간 좌투수를 상대로 홈런 7개를 날리는 등 폭발적인 장타력을 과시했다.

우타자는 우완 투수보다 좌완 투수를 상대로 더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것이 야구계 정설이다. 시야 각도상 좌완투수의 공을 더 오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현민은 8월 이후 좌투수 상대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10일 현재 8월 이후 타율 0.239를 기록 중이다.

우투수를 상대로는 0.292(88타수 21안타)로 선방했으나 좌투수를 상대로는 0.091(22타수 2안타)에 그쳤다. 좌투수를 상대로 홈런은 단 한 개도 날리지 못했다.

우투수 상대 출루율은 0.432를 기록했으나 좌투수 상대 출루율은 0.250에 그쳤다.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안현민은 현재 타격 밸런스가 무너진 듯하다. 2022년 kt에 입단한 안현민은 군 복무를 거쳐 올 시즌 처음으로 풀타임을 소화하고 있다.

한 번도 규정 타석을 채워본 적이 없는 안현민은 8월 이후 체력 저하로 고전하고 있다.

누적된 피로는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는 지난 달 15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수비 도중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병원 검진 결과 양쪽 종아리 근육이 뭉쳐 늘어났다는 진단이 나왔다. 아울러 종아리 뒤쪽 근육 내측 부위엔 피고임이 관찰됐다. 3일의 짧은 휴식 후 복귀했으나 경기 감각과 밸런스를 회복하지 못했다.

지난 달 31일 KIA 타이거즈전에선 수비하다가 왼쪽 무릎 통증으로 교체된 뒤 염좌 및 타박상 소견을 받았다.

그러나 안현민은 다시 선수단에 합류해 힘을 싣고 있다. 현재 4위 kt는 6위 롯데 자이언츠에 단 2경기 차로 쫓기고 있다. 3위 SSG 랜더스와도 2경기 차를 보여서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배구 김희진·전광인 13일 컵대회 출전 “이적 신고합니다”

V리그 전초전 활약 기대

현대건설 김희진

10월18일 개막되는 2025·26시즌 V리그의 전초전인 2025 여수·NH농협컵 프로배구대회가 13일 전남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막을 올리는 가운데 이적생들의 활약에 관심이 쏠린다.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는 남자부 OK저축은행의 베테랑 아웃사이드 히터 전광인이다.

지난 2024·25시즌 V리그에서 현대캐피탈의 트레블(컵대회 우승·정규리그 1위·챔피언결정전 우승) 달성에 앞장섰던 전광인은 시즌 종료 후 아포짓 스파이커 신호진과 1대 1 트레이드로 OK저축은행의 유니폼을 입었다.

2013·14시즌 신인 드래프트 때 한국전력 사령탑이던 신영철 OK저축은행 감독의 지명을 받아 전체 1순위로 사제 인연을 맺었던 둘은 2017년 이후 8년 만에 같은 팀의 감독과 선수로 다시 만났다.

전광인은 컵대회 개막일인 13일 오후 친정팀 현대캐피탈과의 A조 예선 1차전에서 OK저축은행 이적 후 신고식을 치른다.

트레이드 상대였던 신호진이 국가대표팀에 차출돼 맞대결은 무산된 가운데 전광인은 현대캐피탈의 옛 동료와 준결승 진출권을 다툰다. 전광인은 송희채와 아웃사이드 히터 듀오로 나서 OK저축은행의 공격을 이끌 예정이다.

반면 FA 최대어로 한국전력에서 KB손해보험으로 옮긴 아웃사이드 히터 임성진은 대표팀 참가로 V리그에서나 이적 신고식을 치른다. 여자부에선 지난 시즌 후 14년간 몸담았던 IBK기업은행을 떠나 현대건설에 새 둥지를 튼 베테랑 미들 블로커 김희진에 시선이 간다.

김희진은 현역 최고의 미들 블로커로 꼽히는 양효진과 함께 현대건설의 중앙을 책임질 예정이다.

21일 여자부 A조 개막전인 흥국생명과 경기 때 선발 출전할 예정인 김희진은 7월 유망주들이 참가한 2025 한국실업배구연맹 & 프로배구 퓨처스 챔프전 때 컨디션 점검 차원에서 참가했지만 이번 컵대회가 사실상 프로팀들과 본격 경쟁하는 무대다.

메이저 챔프 한자리… 13일 코리아오픈 테니스 개막

시비옹테크 등 한국 팬 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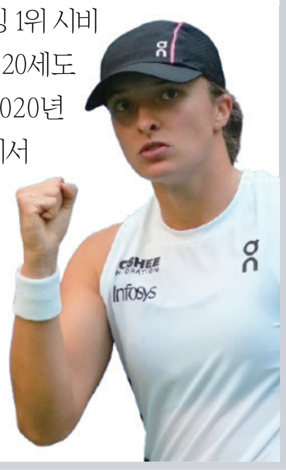
세계적인 톱 랭커들이 출전하는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코리아오픈(총상금 106만4510달러)이 1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개막된다.

올해 대회에는 윔블던 우승자 이가 시비옹테크(2위·폴란드·사진)와 2021년 US오픈에서 정상에 오른 에마 라두카누(34위·영국) 등 메이저 우승 경력이 있는 선수들이 대거 한국 팬들과 만난다.

이들 외에 지난해 윔블던 챔피언 바르보라 크레이치코바(40위·체코), 2020년 호주오픈에서 우승한 소피아 케닌(31위·미국)이 출전하고 에카테리나 알렉산드로바(11위·러시아), 클라라 타우손(12위·덴마크) 등 세계 랭킹 20위 이내 선수들도 우승 후보로 거론된다.

WTA 투어는 코리아오픈을 시작으로 11월 초까지 중국, 일본, 홍콩,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일정을 진행한다.

한국 팬들의 관심을 끄는 선수는 역시 시비옹테크와 라두카누다.



전 세계 랭킹 1위 시비옹테크는 만 20세도 되기 전인 2020년 프랑스오픈에서 처음 메이저 왕좌에 오른 이래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6차례나 우승했다.

북한 보위부 비밀 요원의 자유·인권·민주주의 향한 여정

한원채 지음 | 312쪽 | 15,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

신문사 추천도서

한국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세 번의 탈북·세 번의 체포… 中 연길 감옥·北 보위부·안전부 감옥 수기

희망 잃은 땅을 떠나며 피로 쓴 원고… 폭정 종식 앞당기는 무기 되길

“이 글이 북한에 복수할 유일한 길”

지금 대한민국에는 수천만 북한 노예들의 운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예주와 사이좋게 지내려는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평범한 인텔리 한원채 씨가 남긴 이 글을 통해 북녘 주민들의 절규에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응해야 할지 그 해답을 찾길 바란다. –태영호(전 북한외교관)

질식할 것 같은 고통과 당장 닥칠 것만 같은 죽음의 공포가 배인 저자의 거친 숨결이 행간마다 강렬하게 녹아있다. 목숨과 바꾼, 중국과 북한의 감방에서 절규하며 피로 쓴 이 수기가 노예공화국 북한의 폭정 종식을 앞당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길 소원한다.
–이영환(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노예 공화국 북조선 탈출